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건 세기 말 북한의 오늘

임을출 / 한겨레21 북한전문기자

식량난보다 더 어려운 에너지난

세 천년을 불과 며칠 앞둔 1999년 12월 중 후반의 평양. 그곳은 춥고 어두웠다. 심각한 전력난과 연료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평양에서는 저녁 6시 20분께면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다. 평양 시내를 비롯해 외곽의 도로는 비교적 시원시원하게 잘 정비돼 있다. 하지만, 가로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환하게 켜놓은 곳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평양의 대표적인 대중 교통 수단인 궤도전차나 버스 안도 실내등이 꺼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물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쏘국가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이나 주요 건물에 들어가다 보면 전력이나 연료난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어느 곳을 가나 싸늘한 냉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실상은 북한의 대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평양 순안공항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온몸으로 감지된다. 이른바 북한 유일의 국제 공항에서도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남쪽 사람이나 외국인이 이용하는 큰 식

당에는 그나마 석유 난로가 비치돼 있긴 하다. 이마저도 평상시에는 아무리 추워도 꺼놓았다가 손님이 들어서면 그때서야 켜는 경우가 많다. 전력 공급의 불안정으로 정전도 수시로 찾아온다. 그것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발생한다. 비교적 난방이 잘 돼 있다는 공공 건물이 이런 상태니 일반 가정집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평양의 일반 가정집은 거의가 아파트 살림집이다. 주로 온수 난방으로 겨울을 난다. 이는 석탄 연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연료가 제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일반 가정집 난방은 그만큼 열악해진다는 얘기다. 약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북한의 수도 평양시의 전기 공급은 ‘평양’과 ‘동평양화력발전소’ 2개의 공장이 도맡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는 매일 석탄을 수십 톤씩 갖다 때면서 시커먼 연기를 뿜어낸다.

하지만, 충분한 전기를 내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이다. 무엇보다 화력 발전의 기본 원료인 석탄이 제때, 그리고 넉넉하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조 전력이라 할 수 있는 평양 주변의 수력 발전소

가 맥을 못 추기도 마찬가지다. 몇달째 계속된 가뭄으로 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그나마 이런 전력도 국가 주요 시설에 우선 공급되다 보니 일반 가정집에는 충분한 난방 공급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다고 개인 난로 등이 따로 지급될 리가 없다. 에너지 절약이 시급한 국가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재래식 월동 대책을 세워나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미 지난 시절의 호된 추위를 견뎌내는데 익숙해져 있는 터였다. 기자가 들른 평양 시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도 온기는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곧 방학에 들어간다지만 학생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내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진 추위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영어 단어를 외고, 악기를 연주하며,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다.

곤궁한 삶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북한 사람들

아파트 살림집은 쉽없이 새로 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페인트가 부족한 탓인지 이미 완성된 건물들은 벽돌색 그대로 방치돼 있다. 페인트 자체의 주성분이 휘발유인 탓으로 연료 절약 차원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듯했다. 부족한 것은 전력이나 연료뿐만이 아니었다. 평양에서는 궤도전차와 지하철이 대부분의 주민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하지만, 차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눈에 들어온다. 전차마

다 승객들로 발디딜 틈도 없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띄엄띄엄 배정된 궤도전차와 지하철 운행 일정때문에 이들을 타기 위해 주민들은 늘 길게 줄을 서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아예 차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다.

평양 시내에서 약 120 km 떨어진 향산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양쪽에는 크고 작은 짐을 지거나 들고 어디론가 총총히 걸어가는 사람들로 즐비하다. 북한은 기본 생필품을 비롯해 모든 물자가 턱없이 모자라 보였다. 평양특별시의 경제난이 이 정도이니 다른 지방도시의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분명히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었다. 북한 주민에게 있어 특히 겨울은 참으로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다.

21세기에는 ‘경제’ 강성대국 건설

북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당·정·군 엘리트들도 이제 이런 어려운 현실을 애써 부인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북한의 잠재력과 저력을 세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았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옛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고, 미국·일본 등 서방 국가의 매몰

찬 경제 제재 탓이지, 결코 내부의 제도적인 모순에 따른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은 폐쇄 경제를 고집해 지금의 위기를 자력갱생 방식으로 극복하겠다는 얘기는 분명 아닌 듯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도움이 된다면 자본주의의 장점도 가능한 받아들일겠다는 태도다. 이런 인식 탓인지 대남 교류 협력 창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를 비롯해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외교부 관계자들이 경제 문제에 갖는 관심은 가히 뜨거웠다. 이들 조직의 관계자들은 “두고보라. 누가 최후에 웃는가...”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그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이제 국가 목표가 경제 건설이라면 그들은 이 고지를 향해 그저 불도저처럼 달려갈 듯이 보였다. 이들은 경제 강성대국 목표만 달성하면 21세기에는 가장 남부러울 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미 정치·사상·군사·문화·스포츠 강성대국을 이룩했으니, 경제 부문에서만 성과를 내면 명실상부한 21세기 주도 국가가 된다는 얘기였다.

이런 자신감은 지난 1999년 들어서 부쩍 키워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지난 1999년 당보 「로동신문」, 군보 「조선인민군」, 청년보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신년 공동 사설을 통해, 1999년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경제 건설에 주력해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 지도

부가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내걸면서 그 가운데서도 시급한 인민 경제 생활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이런 목표를 내세우기는 했으나 사실 만족할 만큼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다. 지난해 초 이후처럼 실질적인 국가 역량을 쏟은 때는 없었다는 게 아태 관계자들의 귀뜸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이야기다. 이는 북한이 새 천년 벽두부터 경제 건설에 좀 더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내비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태 소속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세계 최강 군사대국인 미국과 일본 등의 공화국 붕괴 음모와 정치·군사·경제 제재 등에 맞서 싸우느라, 인민 생활에까지 골고루 신경쓸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인민 생활 향상에 많은 힘을 쏟을 것이다.” 이 말은 북한 지도부가 경제 재건을 위해서 대미·대일 관계 개선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뜻을 역설적으로 내비치는 대목이다. 실제로 북한 지도부의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북한 경제는 다소 호전된 것처럼 보였다. 보통의 평양 시민들도 이제 숨넘어가는 위기 상황을 넘긴 듯 다소 여유있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들은 지금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자식들에게까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듯했다.

일반 주민 생활 향상이 당면 과제

실제로 평양은 조용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겨워 보였지만 뭔가 모르는 활력이 느껴진다는 게 기자를 비롯한 10여 명 방북단의 공통된 평가였다. 무엇보다 상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호텔·백화점·주요 음식점에는 어김없이 외화 상점이 별도로 달려 있었으며, 적극적인 호객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남쪽 사람이든 누구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의 물건이라도 더 팔려고 공을 들였다.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비자카드가 결제 수단으로 편리하게 쓰이고 있었다. 남쪽 방문객들이 가장 널리 이용하고 있는 고려호텔에서는 사우나와 안마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노래방이 들어선 건물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차량도 많이 늘어난 듯했다. 주로 독일과 일본제 차량들이지만 평양 거리는 도로를 질주하는 승용차들로 제법 붐볐다. 영업용 택시도 등장했다.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필요한 물건을 갖다놓는 것으로 알려진 락원백화점 입구에는 고급 택시들이 즐비했다. 평양 시내 유명 음식점인 안산관, 은반식당, 민족식당 등에는 국내외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딱 1년 전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남쪽의 한 기업인은 “평양의 꿈틀거림이 느껴진다”면서 “전력난 등으로 아직도 어두운 이미지를 완전히 벗기는 못했지만 평양이 점차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놀라워 했다.

꿈틀거리는 평양의 활기

북한의 이런 변화는 무엇보다 지난 몇년간의 내부적인 경제 극복 노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지도부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인가. 아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다.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방마다 중소형 수력 발전소를 계속 짓고, 화력 발전을 위해 탄광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자를 감자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감자가 현재의 주식인 입쌀보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감자와 감자 국수, 녹말 국수, 감자 지짐, 파배기 등 감자를 원료로 하는 가공 식품을 되도록 많이 개발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북한은 1999년 ① 이모작 확대, ② 품종 개량, ③ 감자 재배 활성화, ④ 토지 정리 사업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감자 재배 활성화와 토지 정리 사업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구상이 얼마나 더 성공적으로 실현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런 정책에 거는 평양 주민들의 기대는 적지 않아 보였다. 실제로 자강도는 중소형 수력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 전력을 100% 자급자족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태의 한 관계자는 “이 지방은 불과 몇해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지금은 전력난 문제를 풀면서 다른 지방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도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티끌모아 전력 생산

북쪽 사람들은 ‘티끌모아 대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규모는 비록 작을지라도 마을마다 물 한방울을 모으고 아껴 수력 발전을 일으키면 전력 문제를 푸는 데 큰 보탬이 된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강원도 안변, 자강도 송원과 홍주, 평북 태천 등 10여 개 지역에는 대규모 수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평양이나 그 주변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엿보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 문제를 그렇게 자주 언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이전보다는 나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갖게 할 뿐이다. 평양 시내의 적지 않은 식당을 다녀봤지만 가는 곳마다 음식은 하나같이 풍족하게 나왔다. 물론 남쪽 손님이나 외국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곳이라 이곳만을 기준으로 식량난 정도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나마 북한에서는 먹고 살 만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도시가 평양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 부족이 최

악에 이르렀던 지난 1995~98년 시기에는 고급 식당에서마저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분명 식량 사정은 많이 나아진 듯했다. 남쪽 기업인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요청하는 지원 품목도 먹는 것보다는 의류나 전기전자 제품, 차량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도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남북 경험에 거는 기대

어쨌든 북한은 바깥에서 막연히 듣는 것처럼 무기력한 곳은 아니었다. 북한 지도부의 적극적인 대남 및 대외 경제 협력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였다. 남쪽과의 경제 협력이 북한 경제 재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었다. 하지만, 아태 관계자들의 언행을 통해서 본 북한 지도부의 생각은 분명해 보였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민간 차원의 대외 혹은 대남 경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남쪽 기업과의 이런저런 협력이 북한에 적지 않은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가 남북 경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도 숨기지 않았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막연한 낙관도 선부른 비관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음을 새삼 깨달은 8 일간의 북한 여행이었다. **完**